

# 사랑은 하되 집착하거나 노예가 되지는 마세요

## 25면에서 계속

나도 말 못하는 거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애긴 해서 뭘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해서 잘하면 내 집 내용도 알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어떠한 요소요소가 결부돼서 지구가 이렇게 굴러가고 있을까, 또 어떻게 돼서 지구가 움 죽거리고 있을까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때로는 북극이 남극이 되고, 남극이 북극이 되고 그러거든요. 왜 그럴까. 이거 한번들 생각해 보셨어요? 즉 거꾸로, 북극이 북극대로 그냥 있지 않고 남극이 남극대로 그냥 있지 않아요. 남극이 북으로 왔다가 북이 남극으로 왔다가 이렇게 돌아오거든. 그래도 그 역할을 그대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한마디 했다 하면 벌써 이 건 일초 전이 과거야. 일초 후가 미래고, 지금 말하는 요게 현실이지. 그러니까 찰나찰나 그렇게 화해서 돌아가는데 어떤 거를 글자로 꼭 집어서 요건 요랄다 하고 써 놓을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지. 이 모두가 그렇게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지구는 요렇게 요렇게 생겼다' 이렇게 써 놓을 수도 없어요. 그대 변경을 시켜서 자꾸 그러야 되겠지. 그러니까 인간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세요. 아이 때 다르고, 조금 자라서의 상황이 다르고, 더 자라서 다르고, 젊을 때 다르고, 늙으면 또 다르고, 아주 늙어지면 더 달라지고, 또 아예 죽어 버리면 아주 달라지죠. 그런데 죽는 게 죽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내가 죽는 날이 바로 오늘이다.' 할 때에 깔짚 옷을 수 있겠습니까? 옷을 수 있다는 그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옷을 수 있을까 말입니다. 인생이 뭘니까? 도대체 인생이라는 것이 하등... 이것은 내가 정말, 진짜 인생을 살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미생물에서부터 진화해서 인간까지 올라왔는데 인간 중에서도 정말 인간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인간, 진짜 인간이 된 인간, 인간 중에서도 더 차원이 올라간 정말 인간들이 있죠. 그럼 관찰을 하게 되면 다 알게 돼요. 속속들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내가 아니다 그렇다 할 것 없이 말이에요. 그럼 등수가 매겨지거든요. 차례차례로. 차원대로 등수가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할까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더라요.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니까 그 넓은 데가 촛불로 그냥 딱 차서 그렇게 켜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길 구경을 하러 들어가니까 가느다란 초예다가 켜진 촛불, 굵은 데다가 켜진 촛불, 또 다 많은 촛불 이런 것이 그냥 늘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세히 물어봤대요, 그거를, "이거는 어떻게 초가 이렇게 가늘니까?" "히, 너희들의 마음이 가느다라 가느다라. 이런 마음이 아주 가난해서 몸도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는 거다." 촛불이 다 많은 거를 보고 "이 촛불은 왜 이렇게 다 닳았습니까?" "이제 들어올 때가 돼서 그렇지." 이러거든요. 굵

은 촛불을 물어보니까 "이 굵은 촛불은 항상 꺼지지 않고 켜져 있는 거야." 그러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이 촛불을 은하계의 별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아주 가정자리에는 보이지도 않는 별들이 있어요. 중간쯤 되면 좀 크죠. 가운데쯤으로 들어가면 더 커요. 더 가운데로 들어가면 더 커요. 큰 별이 돼 있죠. 근데 군데 가장자리로 흩어진 별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별들이 많죠. 그리고 은하계도 다 다르죠. 생명들이 많은 은하계들은 크고, 생명들이 적은 은하계들은 작고, 또 축생의 생명들이 있는 은하계는 또 다르고요. 뭐 이루지 못하는 은하계도 많지만, 우주도 많고 은하계도 많고 그렇지만, 그대 생명들이 살려면 태양도 만들어야 하고...

태양을 누가 거쳐 만듭니까? 태양도 태양대로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법이 있고, 그렇게 해야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팽창도 되지 않고 타 버리지도 않지 않습니까? 또 우리 생명체가 있으니까 달도 있는 거고, 해나 달이나 동시에 돼 있다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 지구에만 그렇게 있느냐. 지구에만 그렇게 있는 것도 아니죠. 뜨거워도 뜨거운 대로 사는 게 있고 차면 찬 대로 사는 게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고 달이 있고, 태양도 만들어서 쓰죠. 우리가 갑갑할 때 전등 하나 더 달면 환하듯이, 그런 역할밖에 안 돼요. 그것도 아주 마음공부하는 사람, 여기다가 잘 관하면서 열심히 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태양도 알고 다 알아요. 에너지 자체가 그냥 우리 산 사람과 같으니까요, 에너지 자체가, 수소 자체라든가 헬륨 자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그냥, 살아 있는 우리에 마음과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결부되지 않으면 태양이 될 수가 없죠. 결부가 되니까 태양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살아나가는 이 생명체들이 어떻게 해어반이 보석으로, 얼른 쉽게 말해서 에너지로 된 인간으로 사느냐 이겁니다. 이거는 어디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유통로 사는데 에너지가 끌려다니는 말할 수 없죠.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물컵이 뚫다기도 에너지로 되고, 에너지가 뚫다기도 사람으로 되고, 사람으로 뚫다기도 이걸로 되고, 이걸로 저걸로 자유스럽게 되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이런 소리 하면 미쳤다고 그럴 테죠? 날더러 미쳤다고 그러겠지만 미친 게 아니에요.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 몸 아닌 게 하나도 없고, 내 생명 아닌 게 하나도 없고, 내 부모 아닌 것도 하나도 없고 내 자식 아닌 것도 하나도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나와야겠다. 들어가야겠다 이게 없느니라. 생이 없기 때문에 사도

없다.'라고요.

지금 그냥 한 가정에서도, 그저 자식들이 나가서 안 들어와도 걱정, 공부를 못해도 걱정, 아파도 걱정, 그냥 뭐 걱정투성이죠. 그런데 본래 이 중생계에서는 그렇게 돼서 살아야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속속지 마라 이거죠. 그렇게 착을 두고 애를 쓰지 말고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물같이 살고, 산 같이 묵묵히 살고, 그냥 바람같이 살아라 이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가 바람같이 살고 있어요. 공해서요. 어디 하나 그냥 있는 게 있어요? 어디 고정된 게 하나 있어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가요 하고... 항상 말하죠. 때에 따라서 "아버지!" 하면 아버지 노릇 하고 "어보!" 하면 남편 노릇 하고 "애, 아무개야!" 그러면 아들 노릇 하고 "형!" 그러면 형 노릇 하고, 이런 고정되게 그냥 놔두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한 것이 뭐가 공했느냐? 이것을 의심할 수도 없죠. 그냥 공해서 화해서 찰나찰나 나투면서 이렇게 화하니가 그냥 '그거 뭘 가지고 공했다고 하나. 아, 사람이 그냥 이렇게 잘 살고 있

## 그렇게 착을 두고 애쓰지 말고 물 흘러가는 대로 물같이 바람같이 사세요

는데 뭘 가지고 공했다고 하나?' 이러지도 말아야죠. 그걸 알면, 그래서 '내가 죽은 이름 없는 이름이여!' 이랬잖아요. '내가 죽은 이름 없는 이름이여! 더불어 같이 죽은 이름 없는 이름이여!' 허허... 이 모두가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세세물들이 벌레까지도 연결이 됐다는 거를 아셔야 돼요. 우린 그것을 오장육부에도 넣고 있어요. 전부 전부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같이. 혼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연들을 여러분이 아시려면, 이 한 생애에 알고 넘어가려면 오직 주인공에 놓고 가져야죠. 그렇게 그냥 마치도록 열이 나도록 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하늘이 무너지다고 해도 겁나지 마시고요. 토끼가 상수리가 떨어졌는데도 그런 줄 모르고 하늘이 무너지다고 막 달아나듯이, 막 뛰지 말고 침착하게 그냥, 하늘이 무너지든지 상수리가 떨어지든지 돌맹이가 떨어지든지 '너 알아서 해라.' 그러고는 그냥, '어차피 한 번 죽을 거, 죽는 거는 마친가진데...' 하는 거죠. 그래서 처형받아서 죽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깔짚 옷으면서 "이제는 내 몸에서 벗어났구나." 이러더라요. 허허허... 아마 그 안에서 아주 그냥 통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기복으로 믿는 것을 없애라.' 이런 것이 뭐냐 하면 '네 그림자, 형체의 노예가 되지 마라. 네 몸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이

몸을 종으로 알아라. 그리고 사랑하라.' 이런 거죠. 아프면 먼저 주고 약도 사다 먹고, 얼마나 사랑해요? 일생을 같이 사는데 말입니다. 이거는 자식지간이나 부부지간보다도 더 애틋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되 집착하거나 노예가 되지는 마라, 이 소리죠. 정말 눈물나는 일이에요. '나를 따라서 그렇게 모진 고생을 하고 심부름을 하는데 몸이 아프면 되겠나?' 하고 이렇게 먼저 주는 그 알뜰한 사랑, 그거면 그만이지, 거기 노예가 돼서 좇아다니선 절대 안 되죠. 우리가 자식도 부모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하되 집착을 하지 마라 이거죠.

이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은요, 또 내가 이런 말을 꼭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가난한 사람이든 돈 있는 사람이든 천도재를 합니다. 이 말 듣고 싶죠? 천도재를 하는데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한테 금방 천도재를 해야 할 일이 있더라도, 천도할 자기에 조상이 있다 하더라도... 조상이 자기 자식을 좀 자식으로 알고 죽었으면 될 건데 그것도 모르고 죽었잖아. 그러니까 그 댓지가 누구 댓이야?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천도재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은 그냥 관하라고만 이렇게 일러 줘요. 관하는 것만 열심히 하면서 '돈 생기면 해 드리리다.' 하고 이렇게 하라고요. 남의 돈 빌려다가 천도재 하는 거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도 역시 고통을 자꾸 만드는 거니까. 만약에 빌려다가 해서 그걸 갚지 못하고 애 탄지탄하면 그 조상들이 편안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다가 빚을 지고 그렇게는 천도재를 하지 마라, 절대로! 누구든지! 그리고 돈이 아주 나을 곳이 없는 사람, 그리고 아주 참, 돈 생기기 어려운 그런 사람은 그냥 스님네들이 그 사람에게 열심히 관하게 만들고 마음을 내서 그냥 해 줘라. 이것이 근본적으로 스님들이 하는 일이고 보살이 하는 일이야. 보살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야. 부처님의 마음이 보살이야.

관세음보살이라고 이름지어 놓은 보살은 산하대지와 같은 거야. 그래서 그 산하대지의 모든 생명들을 키워 내. 살려 내. 그래서 관세음이라고 그랬어. 모두 부처님 머리에 요렇게, 요만한 부처님을 이고 있지? 그거는 얼른 쉽게 말해서 불종자, 즉 말하자면 남자들의 정자라고 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부처님이다 이거야. 하늘이다 이거야. 부처님인 하늘과 관세음인 땅! 땅에서 모두 길러내듯이 일체 만물만생을 길러 내라. 길러 내고 돌봐라.' 이런 책임을 가진 거지, 누가 여자가 되고 싶어서 여자가 되고 남자가 되고 싶어서 남자가 된 게 아니야. 언젠가 떤 데 스님들이 "남자로 태어나게 해 주쇼." 하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 봤어. 그게 도대체 뭘 말라빠진 거냐고, 응? 남자로 태

어나면 뭘 하고 여자로 태어나면 뭘 할 거야, 이 주머니 속에서? 그리고 남자는 남자대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는 여자대로만 있는 것도 아니야. 부처님께서는 찰나찰나 그 모습 없는 모습으로 그냥 자꾸자꾸만 겉로다가 화하지만, 공부 못하는 우리들은 그냥 죽으면 여자가 남자로 됐다가 남자가 여자로 됐다가 또 축생으로도 되고 이리는데, 뭐 그 한 생 남자로 되고 여자로 되고 그랬다고 해서 뭐 이렇게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

난 예전부터 아주, 그런 게 있거든. 내 생명을 아끼지 않았어. 예전에는 산에 늑대가 다니고 여우가 다니고 그랬어. 그렇지만 '히, 떡을 떤데 먹고, 맘대로 해라.' 그러니 그걸 뭐라고 말할 할까? 지금도 그래. 그런 거는 있어. 그런 거 딱 한 가지는 있어. 가리지 않는 거, 죽음을 겁내지 않는 거, 죽고 사는 거를 가리지 않고 버린다면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어, 두려울 것도 없고, 이것이 된다 저것이 된다 할 것도 없고, "이것을 되게 해 주쇼." 할 것도 없어. "잘살게 해 주쇼." 이럴 것도 없고 "잘 먹게 해 주쇼." 이럴 것도 없어.

그 마음이 얼마나 모이고 모여서 그렇게 된 줄 알아?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도 알게 됐고, 같이 같이 찢어진 사람도 알게 됐고, 인생 살아나가는 게 다 이렇고, 축생 살아나가는 게 다 이렇고... '모두가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죄구나.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모르는 게 죄구나.' 하는 거를 생각했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하기로 작정을 했던 거지. 그런데 항상 겉뎀기의 노예가 돼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그러다가, 또다시 구르고 또 구르고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스님들이 벗어나지 못하면 그 신도들도 벗어나지 못해. 신도들이 벗어나지 못하면 그 불쌍함을 아떡하느냐고.

물고기가 자기 몸뚱이는 하나인데 알은 수만 개를 낳아. 조금 자라면 다 잡아먹히지만 삼분의 일은 살아남지. 그러면 열만 줄 알아?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거짓으로 알지 말고... 실 사이 없이 지구가 돌아가는 것도 그 안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게 자기 주머니에 넣어서 가둬 놓고 돌아가게 하는 것이지. 이런 거를 그냥 확확확확 벗어 버리려고 해도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그러니까 뭘 수 있으면 벗어나서 남도 전부 실패할 수 있고, 나도 삶의 보람을 느끼고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 지금 아무리 산 사람들이 로케트를 명왕성으로 쏘도 명왕성에서 돌아오지도 못해.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다른 혹성이 어떻게 하고 지내는 집인지 그것도 모르잖아. 그러니 우리는 벗어나는 수밖에 없어.

\*위 법문은 1999년 5월 2일 법형제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든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사)한국불교금강선원 제천 금강사 불교여자전문대학 학생모집

초발심자와 출가를 원하는 불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특히, 해외 포교 희망자와 출가수행을 원하거나 사찰·포교당을 개설하고자 하는 불자들을 환영합니다.

### ◆ 교육내용

	내 용
불 교 교 리	① 경(아함·방등·반야·법화·열반·화엄경) ② 율(4분율·5분율·비구·비구니·우바새·우바이 계율) ③ 논(구사·유식·3론·기신론) ④ 선(위빠사나·명상·선 실습) ⑤ 포교론(군법당·교도소 등) ⑥ 밀교
불 교 의 식	① 조석예불·종성기도 ② 불공·시식 ③ 송주·장엄예불·방생법회 ④ 승무(천수바라·공양무 등)
기타 교양강좌	외국어(영어회화) 꽃꽂이·다도·등공예

◆ 모집기간 : 2010년 4월 15일 ~

◆ 개강일자 : 2010년 6월 3일(수) 오전 10시 입학식

(입학식 후 금강경오가해 특강 - 불교TV 방송녹화)

◆ 교육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목요일 오후 4시 (매주 12시간)

◆ 모집인원 : 약간명 (기숙사 원비)

◆ 강의장소 : 제천 금강사 (충북 제천시 모산동 257-3번지)

◆ 특 전 : 1년 ~ 2년 과정으로 포교사·전법사 자격증 획득  
출가를 희망하는 분에게는 석발·수계

◆ 교 수 : 활안·도기·정명스님을 비롯하여 국내외 저명한 학자와 각계 전문인들

◆ 문 의 : 사단법인 한국불교 금강선원 ☎ 02)969-2410

제천 금강사 ☎ 043)646-3800 충북 제천시 모산동 257-3

## 성서선해 (聖書禪解)



"진리는 하나이다. 그러나 현자들은 서로 다른 이름과 형태로 이를 설명한다."

- 힌두성전 우파니샤드

불경과 성경이 다 같이 우주 진리를 전하고 있다면 이 두 성전에 담겨있는 내용이 서로 다를 수 없다. 오직 이 진리를 인간 지혜의 근기에 따라 서로 다르게 말하고 해석했을 뿐이다.

"불경과 성경이 지난 수천년 동안 인류가 이에 의지하여 악을 그치고 선행을 해왔고, 어리석은 마음을 깨달아 지혜로운 삶을 개척해 왔다"

- 성서선해 머리말에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한국불교 금강선원 총재 활안 스님께서는 기독교 성경을 선(禪)의 마음으로 읽고 그 뜻을 해석하셨다.

聖書禪解 · 편저: 활안 한정섭 / 발행처 : 불교정신문화원 / 318쪽 / 가격 : 15,000원

· 구입문의 : 02)969-2410 / 010-5611-0657